



카나의 혼인잔치,
<스테인드글라스>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212.736.8500(EXT 355, 384)

www.stfranciskc.org/email-stfranciskc.org@gmail.com
사무실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목)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5:45 아래 성당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ofmichael@hanmail.net

사무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정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ohanleosb@gmail.com

한국학교 stfranciskc@gmail.com

제1독서: 이사 62,1-5

제2독서: 1코린 12,4-11

복음: 요한 2,1-11

가톨릭 성가 입당: 165

봉헌: 39

성체: 35

파견: 417

◆ 화답송



(후렴)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말씀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예수님 표 포도주”

요한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첫 기적을 병자의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신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닌 다소 밋밋하게 느껴지는 ‘카나의 혼인잔치’로 소개한다. 아마도 저자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처럼 흥겨움이 사라져가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흥겨움을 주시게 하기 위해 오셨음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 같다.

사람들은 취미나 친교자리를 통해 흥겨움을 찾는다.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세상에 흥겨움도 결코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다행이 세상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질 좋은 포도주가 넘쳐나듯이 흥겨움을 주는 것들이 많아진다.

반면에 포도주로서는 온전한 흥겨움을 체험할 수 없게 된 사람들도 생겨난다.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 떠나는 의사들과 아르바이트 대신 자원봉사를 선택한 젊은이들, 산간벽지의 아이들을 위해 도시를 떠난 교사들... 삶의 흥겨움을 새로운 곳에서 발견한 이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어디서 흥겨움을 찾고 있나?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흥겨움을 찾고 있는 나를 본다. 그런 나의 혼인 잔치에 예수님께서 얼쩡거리신다. 당신이 빚어주는 포도주 한번 마시라며.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며 세상도 우리의 공동체도 그리고 우리들 각자도 흥겨워졌으면 좋겠다. 그 흥겨움이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이면 참으로 좋겠다. ♠

◆ 전례봉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1월 20일	김영희 안나	이규완 안토니오	이미숙 안나	박기목 알버트	민재인 소화데레사	조성자 황경숙	신정목 오윤서	양미숙 김승애 이지연 박신희 유정옥 유기호 민완준 민덕미
1월 27일	홍원표 안드레아	한채희 로사	조정환 제랄드	한창희 바오로	김우현 에제키엘	노승후 홍지혜	김진섭 이선아	진문자 백이백 김영희 이지훈 민완준 민덕미 김승애 민재인

◆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되기를 바라셨나이다.
 -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 이제 저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 아멘.



※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
1월 18일(금)~25일(금)은
그리스도인 일치를 간구하는
일치 주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운.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원조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중식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야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Sam Ahn
NEWSTAR
NewStar Realty 부동산
(콘도, 빌딩, 매매, 리스, 사업체)
(M)201-294-4510 (T)212-967-4242
smahn@newstarrealty.com
16W 32nd St. #702, New York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corcoran
real estate
David Son
david.son@corcoran.com
917-613-7305

동양보험
Property & Liability Wholesale Brokerage
이은경 헬렌 Licensed Broker
212-683-9393
16W 32nd St. Suite705 New York, NY

메디케어/시니어 플랜전문
가입변경 처방 약 추가해택, 롱텀케어 무료상담
Licensed Insurance Agent
Jane Min 민재민
(929)888-3030
Jane@usbohum.com 카톡문의 @usa메디케어

Sae Woong Rho NEW YORK LIFE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Licensed Agent-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OLYMPIA **올림피아 여행사**
OLYMPIA TOURS & TRAVEL
항공권(대한항공 대리점), 고국 관광, 유럽/남미여행, 유람선, 신혼여행 등
박옥영 로사리아
212-695-6699, 718-224-9477
www.olympiatourusa.com 1270 Broadway #302, New York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아그네스
646-808-7322

Kyani
알래스카 야생블루베리와 홍연어 주원료
모든 성인병, 암, 아토피, 당뇨, 심장질환 외에 탁월
효과를 건강하게, 염증제거, 자연영양공급
이클라우드아
917-484-11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WEST 8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12pm-9pm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Email Marketing
대한인쇄
T. 212. 971. 0212 / 268. 2776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인공지능 투자자
2017년 베스트 셀러!
권트
윌스트리트 인공지능의 지열한
전쟁 이야기
반다북US, 고려서적, 리더북에서 절찬 판매 중
문의- **관용진 바오로**
yjp.kwon@gmail.com 646-831-8031

JM JAKE MOVING
917.450.8389 NY
NJ **201.300.7881**
손님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포장이사 • 타주이사 • 귀국이사 • 학생이사
서정숙 야고보 jakemoving77@gmail.com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F-1 I-20 발행)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FL New York

◆ 정 기 모 임

➢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친교실 = 다미아노 홀 / 성당 밖 좌측 20m)

➢ **꾸리아**가 오늘 11시에 아래 성당에서 있습니다.

➢ **양업회**가 오늘 11시에 2층 컨퍼런스룸에서 있습니다.

◆ 공 지 사 항

➢ 설 합동 위령 미사 안내

일시 : 2월 3일(주일), 9시 15분 윗 성당
신청 : 미사 후 친교실 안내데스크 (연령회 담당)
마감 : 1월 27일(주일)
☺ 이름을 바르게 써 주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 설 명절 행사

일시 및 장소 : 2월 3일 주일 미사 후~오후 1시 친교실
일정 : 1)공동체 어르신들께 세배예절
2)전통놀이(요셉회 주관)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이날의 모든 단체별 모임은 설 행사로 대체됩니다.

➢ 성경 공부 일정

신부님반 (수) *1월 휴강		
주일반	오후1시~2시30분	(20일) 아래성당 (27일) 프랜시스 룸

➢ 한국학교 등록

https://manhattan.co1.qualtrics.com/jfe/form/SV_5na7jL2bd9nvPsp

➢ 성가대 단원 모집

하늘처럼 성가대에서 함께 주님을 찬미할 새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문의 : 최인식 세례자요한(917.342.1517)

➢ “건강한 영성적 삶을 위한” 성장 세미나 참가 안내

일시 : 2월 17일(주일) 오후 2:00(미사 있음)~
18일 (월) 오후 7:00(1박 2일)
장소: Marian Shrine Retreat House
(174 Filors Lane, Stony Point, New York 10980)
*시작 모임장소 : 락클랜드 성당의 이태석 신부 기념관
지도단 : 미동북부 성령채신 봉사회 지도신부 및 사제단,
Dr. Christina Kim.PhD, 봉사팀
인원 : 50명 / 신청 마감 : 2월 4일(월) / 참가비 : \$180.00
참가대상 : 건강한 영성적 삶을 생활하고 싶은 분들
준비물 : 성경, 묵주, 필기도구, 기도서 등
신청방법 : 본당 성령 기도회
문의 : 이은경 헬렌(917.921.9619)

➢ 2019년 성지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파티마, 프랑스 루르드(3개국)”

일시 : 2019년 9월9일(월) - 9월19일(목)(10박 11일)
순례지 : 마드리드-톨레도-아빌라-알바 데 토르메스-
살라망카-파티마-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레온-
로올라-루르드-사라고사-몬세라트-바르셀로나
참가경비 : \$ 2,900 선착순마감 : 25명 예약금 \$500
문의 : 성당 사무실

➢ 주님 봉헌 축일 초 예약 판매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을 맞아 학부모회가
각 가정에서 1 년간 사용할 초를 주문 판매합니다.
-주문 및 선금 예약 : 1월 20일, 27일 미사 후 친교실
신청하신 초는 2월 10일(주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양업회, 본당기금 마련 물품 판매

설을 맞이하여 양업회에서 **떡국떡**과 **만두**를
판매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일시 : 1월 27(주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신규 성찬 봉사자 전례 교육 2차

대상자<존칭 생략> :
이은주 이정현 홍민철 정제임스 백승훈 김영숙
일시 및 장소 : 1월 26일(토) 오후 2시~5시, 아래 성당



신약 서간 구분

바오로 서간 (13)	사목 서간 (3)	수인 서간 (6)	가톨릭 서간 (7)
로마서 코린토 1,2서 갈라티아서 필리피서 테살로니카 1서 필레몬서 테살로니카2서 콜로새서 에페소서 티모테오1,2 티토	티모테오1,2 티토	필리피서 콜로새서 필레몬서 에페소서 티모테오1,2	야고보 유다 요한1,2,3 베드로1,2
	광범한 독자를 대상	바오로가 감옥에서 집필	사목적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침

신약 27

4(복음) + 1(사도행전) + 13(바오로 서간) +
1(히브리서) + 7(가톨릭 서간) + 1(요한묵시록)

"성경 맛들이기 - 서한편" 1.2 티모, 티토, 필레

티모테오 전.후서 · 티모서

이 세 편지는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와는 달리, 바오로가 자신의 협력자였던 티모테오와 티토에게 보낸 개인편지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분히 지역공동체의 사목방향과 직무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어서 흔히 '사목 서간'이라고 부른다.

티모테오에 대해서는 티모테오서 외에도 사도행전과 다른 편지 일부에도 소개된다(사도 16.3 ; 사도 19.22 ; 1테살 3.2.6 ; 1코린 16.10).

티토는 사도행전에 거의 소개되지 않지만, 바오로 사도와 코린토 교회공동체 사이의 갈등에 훌륭한 중재자였을 만큼 코린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이였다.

티모테오서의 집필목적

티모테오로 대변되는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의 가르침이 잘못 되었음을, 당시에 널리 퍼져있던 그리스-로마 철학의 문체와 어휘, 논증방식을 사용해서 일깨우고자 한다. 1세기말 아시아 교회 전역에는 율법교사로 자처하면서도(1티모1,7) 꾸민 이야기와 족보에 정신이 팔려(1티모1,4)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절제하며(1티모4,3)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2티모2,18) 이들이 여기저기서 늘어났다. 다른 이들의 신앙까지도 뒤흔들어 놓는 교회의 암적인 존재들인 이들에 맞서, 바오로가 전해 준 그리스도교 사상만이 참된 삶의 길이며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조물은 모두 좋아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1티모4,1-5)을 일러주고 있다. 또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되 각 사람의 형편에 맞추어 권면하라고 하면서 언제나 복음을 선포하라고 촉구한다. 자기 은사를 개발하고 성장시키는데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티모서의 집필목적

그리스도교가 퍼져나가던 1세기 말엽은 개척교회와 다를 바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교회를 조직하는 일에서부터 교회 구성원을 격려하고, 교회의 정통 가르침을 전수하며, 이단자들을 배척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사목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었다. 이에 신설된 교회를 맡아 사목하는 이들이 이러한 갖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일러주고자 한다. 사목자는 사람들을 건전한 가르침으로 격려하고 훈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사목 협조자들도 가르침에 의거한 건전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또한 어리석은 논쟁이나 족보 시비, 다툼이나 율법 쟁론은 무익하고 부질없는 짓이므로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직접 행실로써 모범을 보이면 적대자들의 비난도 받지 않을 뿐더러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필레몬서

바오로 사도의 편지 중에서 가장 짧다. 필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스가 도망쳤다가, 바오로 사도를 만났던 것 같다. 바오로는 그를 다시 필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선처해 줄 것을 부탁하는 짧은 편지를 썼다. 주목할 점은 당시 주인과 노예 관계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형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타이른다는 것이다. 세상의 법과 하느님의 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미 사 봉 헌

● 연미사

김병준
이태묘, 이영우
김귀숙 로사
조화장 안나
엄창석 요한
김복혜
원용한 요아킴, 김종목 리차드

봉헌

김민정 세라피나
이상홍 스테파노
나혜정 지나
연령회,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엄청자 요셉피나
김범석 루카베드로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3,230
감사헌금 \$ 200
합 계 \$ 3,430

● 생미사

정다경 마리아
이영애 레지나, 이지연 안나레지나
김종화 필립보, 강건대 마리아
김광욱 미카엘
김성인 미카엘신부, 김 첼레스틴수녀
민사룡 가브리엘
김려원 마리스텔라
박연희
김영숙 카타리나, 김순한 루시아
김옥지 아가다, 전마지 마가렛
이진자 세실리아, 이재오 클레멘트
이종환 T.아퀴나스, 정창동 폴리나
박정자 로사, 김종화 필립보
성령기도회 회원과 가정
이지훈 아네스
이미진 조앤그레이스
김소영 사비나
박난성 요셉 프란치스코
엄윤근, 엄윤민 마태오

희망의 모후 Pr
여동건 가족, 이지훈 아네스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정희자 리드비나
이 안나
민 안젤라
경 프란치스코 부부
박 순 로사
양업회
양업회
양업회
양업회
양업회
성령기도회
이지연 안나레지나
이지훈 아네스
김지영 유스티나
양미숙 마리아
엄청자 요셉피나

교무금 :

이희철 윤항구 임영애 마봉한 진홍섭 양복연
장철순 신윤길 유경자 이해자 박종옥 문예하
경원유 엄청자 이영근 김지에 김범석 이경수
배인순 배인철 김보현 이남석 강혜숙 안선정
한시찬 유인경 이진옥 표해심 서지석 강영옥
홍봉운 이영숙 이경자(울) 박정자 유민환
유정옥 양소영 박예하 심소연 심나은
진승환 박성현 한창희 최진영

감사 헌금 :
강혜숙 이흥규

꽃 봉헌 :